



사회 복귀를 향한 희망으로 가득한 그곳, ‘근로복지공단’ 인천산재병원 특수재활교실에 가다

취재 연습기 기자 skyway@safety.or.kr



청명한 가을의 어느 날. 차가워진 바람과 시리도록 파란 하늘은 추운 겨울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데, 이런 세상과는 달리 여전히 온기가 가득한 곳이 있다.

그곳은 바로 인천산재병원 별관에 위치한 특수재활교실이다. 교실은 세상 날씨와는 상관없이 사시사철 따뜻하다. 산재근로자들의 사회복귀와 재기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언제나 교실을 덮고 있기 때문이다. 저무는 낙엽으로 대변되는 예술의 계절 가을을 맞아 산재의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키고 있는 이곳 산재근로자들을 만나봤다.



▲ 이주홍 씨, ◀ 김찬립 씨

목공예실의 최고참, 이주홍 씨

귀금속디자인, 원예반 등 7개 특수재활교실이 모두 물려있는 병원 별관 한편에서 낯선 니스 냄새가 풍겨온다. 그 향을 따라 발길을 옮겨보니 누가 오는지도 모르고 니스 칠에만 열중을 하고 있는 한 환자가 있다. 이름은 이주홍(42) 씨. 그는 인천 산재병원 특수재활교실 목공예교실을 대표하는 자타공인 우등생이다.

이주홍 씨는 인천산재병원 외래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산재 근로자이다. 지난 2006년 건설현장에서 당한 추락사고로 허반신 마비 판정을 받고 올해로 벌써 휠체어 생활만 6년째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겠지만 그의 얼굴에는 그늘 한 점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선한 미소가 가득하다.

물론 그도 처음부터 웃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슬픔 속을 헤매던 그가 자신의 모습을 되찾기를 수 있었던 데에는 많은 도움이 있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와 함께 했던 가족, 조금씩 아픔을 잊게 해주었던 세월이라는 약 그리고 나무다.

입원 생활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5년 전 처음 찾았던 목공예 교실. 그동안 많은 선배들이 전국대회와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 또한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왔고, 이제는 가장 오래된 수강생 중 하나이자 명실공히 교실 내 최고의 실력자로 거듭났다.

이미 목공예에서 상당한 실력을 갖춘 그이지만 여전히 그는 작품 활동에 조금의 게으름도 없다. 자신의 성실한 모습과 웃는 얼굴이 병원 후배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희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홍 씨는 “제가 그동안 보고 부러워해온 선배들처럼, 제 후배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희망이 되고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전통공예실의 자랑, 김찬립 씨

같은 건물, 또 다른 공간에선 흙덩이를 가지고 연신 씨름을 하고 있는 한 어르신이 보인다. 어르신의 성함은 김찬립 씨로 올해로 환갑을 맞이하셨다. 김찬립 씨는 수년전 산업재해로 머리와 어깨를 크게 다치셨다.

때문에 처음 전통공예교실을 찾았을 때는 그 후유증으로 흙덩이를 들어 옮기는 것조차 힘들어 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평생 도예를 업으로 삼은 전통 도예가의 느낌을 물론 풍기실 정도가 됐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지 어렵지 않게 짐작이 된다. 실제로 그의 작품을 시기별로 보고 있노라면 마치 한 아이의 성장과정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초기의 작품과 최근의 작품을 비교하면 과연 한 사람이 만든 작품인지 의심이 간다.

그는 평소에는 밝고 웃음 많은 옆집 아저씨 같지만, 도예 작업에 임할 때는 말 한마디 건네기가 힘들 정도로 집중력을 보인다. 이런 그의 손에서 형태도 알아볼 수 없었던 찰흙조각은 점점 표현력과 정교함이 더해져 작품으로 변해간다. 그럴싸한 화병 정도는 눈감고도 만든다는 것이 주변인들의 평가다.

희망은 노력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산재환자는 여타 환자들 중에서도 가장 치료과정이 어려운 환자들로 알려져 있다. 멀쩡했던 사람이 한 순간의 사고로 장애를 입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 충격과 고통으로 인해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가 드물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독 인천산재병원 특수재활교실에는 성실하고 모범적인 산재환자가 많다. 그 이유는 그들의 스승에게서 찾을 수 있다. 특수재활교실의 교사들은 적게는 수년에서 많게는 수십 년에 걸쳐 이곳 산재환자들과 동고동락을 해왔다. 따라서 그들의 아픔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진심으로 이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지도를 한다.

20여 년간 전통공예교실을 이끌어온 정동화 교사는 “특수 재활교사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명감이 없다면 하기 힘든 일”이라면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하고 그들을 새로운 삶을 이끌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동안 직무를 수행해 왔다”고 말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산재가 가져온 절망은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깊다. 하지만 그 절망으로부터 스스로를 구해 줄 한줄기 희망은 그 절망을 스스로 이겨냈을 때 볼 수 있다.

붓 한 자루, 작은 나무 조각, 컴퓨터 키보드 같이 흔한 사물들에 묻어나는 작은 희망의 기운을 힘껏 움켜잡은 이들만이 맛볼 수 있다는 희망의 열매. ‘전문 기능인’이라는 꿈을 향해 달려가는 이들이 인천산재병원 특수재활교실, 그곳에 있다. ☺